

박영선 장관 '세계경제포럼' 이사 위촉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세계경제포럼(WEF) 이사에 위촉됐다. 박 장관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0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격으로 참석한다.

AMP 이사는 임기는 올해 12월까지이며 직위의 변경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AMP 이사회는 제조혁신 분야에서 세계 주요 정부 및 기업의 리더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WEF는 한국의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중기부 역할에 주목, 박 장관을 이사로 위촉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박 장관은 선진 제조 및 생산(AMP) 이사회 이사 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M&A



이상현
창업칼럼

많은 기업이 필자에게 브랜드 M&A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중견기업들이 신사업으로 프랜차이즈사업을 선호하는 기조증가에 따른 수요증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 프랜차이즈사업을 진행하는 가맹본부나 사모펀드(PEF) 운영자들의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프랜차이즈사업의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변화와 아이템들의 회전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본사들이 신규브랜드를 출시하는 기간이 점점 단축되는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회전 주기는 약 5년 정도다. 그 의미는 5년 정도 운영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본사들은 신규 브랜드를 모색하거나, 브랜드의 리뉴얼을 통해 경쟁력을 지속하려는 행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소비의 회전주기가 짧아짐으로 인해 본사의 프랜차이즈 사업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특징 중 신규브랜드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2010년 이후 본사들 또한 더욱 M&A를 통한 시장진입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신규 브랜드 개발보다 경쟁력이 있으며 안정적으로 창업 시장에 진입할 수 있

는 사업 성장 방법으로 브랜드 M&A를 선택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최단기간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관리시스템이 부재의 브랜드를 단기간 매입 후, 성장동력 극대화를 통해 시세 차익을 남기기 좋은 사업과 투자처로 프랜차이즈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중·소형브랜드들의 M&A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탑재했으며 수익적 측면에서도 성공적 사례를 가지고 있다.

할리스커피, KFC, 놀부, 블루클럽, 배달의민족, 공차, 웅진,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버거킹, BHC, 크라제버거, 불소식당, 큰맘할매순대국 등 중형브랜드부터 소형 브랜드까지 브랜드 M&A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많은 브랜드가 M&A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성장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브랜드를 선별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수라 하겠다. 새로운 시장으로의 안정적 진입과 투자 대비 수익성 증가를 함께 가져올 수 있는 브랜드는 어떠한 조건을 탑재해야만 성공적 투자가 가능할까?

먼저 브랜드에 대한 1, 2차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구분하는 1차 소비자는 가맹점주를 의미하며, 2차 소비자는 실질적 충성고객을 의미한다. 결국 해당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와 만족도가 브랜드의 경쟁력이며 수익과 성장률의 근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맹점주들이 가지고 있는 본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영업에 따른 적합한 마진율을 통한 수익

성 측면은 인수합병 후 재계약이나 우호적 협업 관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의 규모와 지역분포도 중요하다. 최소한 5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가맹점의 분포도에 따라 마케팅과 물류 지원, 관리시스템 등 실질적 수익기반과의 호환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00개 미만의 브랜드가 전국 단위로 산재한 위치기반이라면 유통과 매장관리를 위한 경상비의 상승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이템이나 업종에 따라 지역적 안배가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 기업과의 통합 마케팅 측면과 유통채널의 합병 가능 여부를 검토 후 경쟁력 기반의 우수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경쟁 관계도 역시 중요한 점검 사항이다. 동종아이템 내지 유사 아이템과의 경쟁 강도가 항목별로 차별성과 경쟁적 우월성을 가졌는지도 반드시 따져 봐야 할 사항이다.

브랜드 경쟁력이나 규모적 측면에서의 절대적 경쟁자가 시장에 존재한다면 그만큼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어려울 수 있다. 가급적 모기업과의 협업이나 시너지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범위의 기업/브랜드와의 통합이 그러한 이유로 필요한 곳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M&A는 브랜드력, 가맹점주, 조직력, 수익성 측면에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우수한 브랜드를 발굴 결정할 수 있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KB국민은행, 미얀마에 한국어 CBT시험장건물 신축 기부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미얀마 경제 수도 양곤에서 한국어 CBT(Computer-based Test) 시험장 건축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신축되는 한국어 CBT 시험장 건물은 총 4층 건물이다. 1층은 미얀마 노동부의 송출행정 사무실, 2~4층은 한국어 시험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왼쪽에서 네번째부터) 이상화 주미얀마 한국대사, 도 모모 수찌(Daw Moe Moe Su Kyi) 미얀마 양곤주 노동부 장관, 최창수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대표, 우요 아웅(U Myo Aung) 미얀마 노동부 차관.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자금운용본부 경영목표 달성 결의대회 NH농협은행은 지난 10일 자금운용부문이 서울 중구 본사에서 '2020년 경영목표 달성 및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한 자금운용본부 임직원들은 법령과 제규정, 임직원 행동지침을 준수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신뢰받는 농협은행 구현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김행춘 부행장(앞줄 가운데)과 자금운용본부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KT&G복지재단, 캄보디아·미얀마에 대학생 봉사단 파견 KT&G복지재단이오는 17일까지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각각 대학생 해외봉사단 30명씩 총 60명을 파견해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대학생 봉사단은 캄보디아 씨엠립 주(州)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도서관 건립과 건물 페인팅 등을 진행하고, 미얀마 양곤지역에서도 사원(寺院)학교를 방문해 정수시설 및 화장실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KT&G



관광공사, 中 청소년 겨울철 수학여행 유치 한국관광공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3500명 규모의 중국 수학여행 단체가 다음 달까지 서울과 인천, 대구 등지를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학여행 단체는 관광공사 상하이시사가 중국 장쑤관광국제교류센터와 협력해 유치한 것으로, 화동 등 중국 각지에서 출발해 다음 달 초까지 7회에 걸쳐 한국을 찾는다. 2018년 대만 가우슝여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단체 방한 모습. /한국관광공사

인사

◆국회 ◇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고상근 △기획조정실장 홍형선 ○이사관 승진 △관리국장 여영준 △국회사무처 객관준 △국회사무처 박규찬 △국회사무처 정경윤 △국회사무처 정대영 △국회사무처 최병권 △경호기획관 최호호 ○이사관 전보 △의정연수원 교수 김상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균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아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최용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허병조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선춘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이신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병주 △국회사무처 이지민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철 ○부이사관 전보 △정보위원회 임법심의관 김사우 △여성가족위원회 임법심의관 김수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법심의관 상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법심의관 임명현 △국회운영위원회 임법심의관 정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법심의관 정홍진 ○국회입법조사처 이사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장 오명호 ○부이사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의관 강대훈

◆국회도서관 ○이사관 전보 △의회정보실의 회정보실장 이신재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실장 노우진 ○부이사관 전보 △정보통신국 정보통신국장 김정혜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장 박미향 ○이사관 전출 △국회사무처 박선춘 ○이사관 전입 △기획관리관실 기획관리관 김경호

◆미래에셋대우 ○신임 △IR팀장 서창권 △Global혁신팀장 최정민 △Global시너지팀장 김만재 ○전보 △홍보팀장 이남주

◆bhc ○전무 승진 △경영지원본부 CFO 허명수 ○상무 승진 △지원사업본부 연구소 김충현 ○부장 승진 △가맹사업본부 김정열 △가맹사업본부 오승우 △지원사업본부 마케팅팀 김지현 △지원사업본부 재무팀 정승원 △지원사업본부 홍보팀 김동한

◆아주캐피탈 △리테일금융본부 지점장 △부산지점장 김한수 △서울지점장 허찬수 △경인지점장 이상범 △광주지점장 구본탁 ○채권본부 센터장 △경인센터장 이우관 △강북센터장 전응수 △충청센터장 장희성 ○커머셜금융본부 영업소장 △광주커머셜영업소장 최양현 △경인커머셜영업소장 이규성 ○부서장 △커머셜금융팀장 강동수 △채권관리팀장 이승호 △채권기획팀장 구민우 ○인사노무팀장 배규정 △준법감시팀장 김정준

◆IBK투자증권 [보임] ○본부장 △금융상품본부장 김기연 △법인영업본부장 허경량 △강

북영업본부장 김성근 △강남영업본부장 손관 △서부영업본부장 이상섭 △영남영업본부장 김성범 ○센터장 △영양부장 백기억 △IBK WM센터 중계동센터장 이영호 △IBK WM센터 역삼센터장 유유신 ○부/실장 △영양추진부장 이두희 △스마트금융부장 전정석 ○팀장 △부동산금융1팀장 정철윤 △부동산금융2팀장 김진관 △경영관리팀장 권오현 [승진] ○상무부 △프로젝트금융본부장 백동훈 △채권영업팀장 박진영 △중소기업분석부장 유육재 △감사실장 박양수 ○이사 △대구센터 배성원 △IBK WM센터 역삼센터장 유유신 △구조금융1팀장 김성환 △인사부장 김주영 △경영기획실장 현진길 ○부장 △노조위원장 이상용 △IBK WM센터 강남센터장 김용주 △IBK WM센터 반포자이센터장 허은진 △영양추진부 이원형 △FICC운영팀장 문정훈 △IBK금융팀 박철수 △종합금융2팀 정철윤 △새산업팀장 이소라 △리스크관리부장 한종숙 ○차장 △영양추진부 서정석 △IBK WM센터 창원센터장 윤성곤 △법인영업1팀 최준주 △금융상품영업팀 강세정 △부동산금융2팀 김완영 △종합금융1팀 김환희 △IPO1팀 이시우 △IBK기업금융1팀 이종훈 △전략기획팀 이정훈 △투자분석부 박옥희 △컴플라이언스팀 유재규

부음

▲최경애씨 별세, 조성대(목사)·조성욱(아이맥 초 대표)·조성화씨 모친상, 박형용(굿타운 대표)·이진우(매일경제신문 산업부장)씨 장모상, 박희정씨 시모상 = 13일 오전 3시20분, 창원병원 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7시.
▲이기욱씨 별세, 최동수(충북도 축수산과 친환경축산팀장)씨 모친상 = 13일 오전 3시 45분, 청주 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8시.

▲서석인 씨 별세, 서병수(전 부산시장)·하수(부일석유 대표)·현수(부일여객 대표)·범수(전 경찰대학장)씨 부친상 =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8시.